

<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온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사기도 당하고, 손해가 가는 일이 많이 있다. 온전하게 행하면 사기도 당하지 않고 손해도 안 간다.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당하지 않게 된다. 고로 온전하게 행하여라.
2.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,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가 안 된다.
3. <성령님>과 일체 되려면, 무엇보다 ‘성령의 감동’ 대로 하여라.
4. <성령의 감동>을 받으려면 ‘감각’ 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. 기도해서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, 이야기해야 된다. 그러면 <육>으로는 ‘만물 계시’ 를 보여 주시고, <혼>으로는 ‘꿈’ 으로 보여 주시고, <영>으로는 ‘영계’ 도 보여 주신다.
5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>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온전하게 일체 되어라.
6. <온전한 말씀>을 늘 전해 주니,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.
7. 자꾸 하면, 온전해진다. 가만히 있으면, 안 해진다.
8. 온전하게 되려면, 또 해 보고, 또 해 보면 된다.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.

9. <온전하게 하는 것>도 자꾸 해 버릇하면 된다.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해라.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.
10. <온전하지 못한 사람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가 안 된 사람’이다. 고로 말씀을 들어도 행해지지 않는다.
11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돼야 해진다.
12. <온전하게 되는 방법> 중의 하나가 ‘하겠다는 결심’을 하고 행하는 것이다. 그리고 ‘세밀하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는 것’이다. 그리고 ‘온전하게 하겠다고 결심한 마음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.
13. 무엇이든지 ‘생각’에서 잊어버리면 못 한다. <생각>이 ‘생명’이다. 고로 <생각>을 안 하면, ‘생명’이 존재하지를 못한다. 항상 생각해야 된다.
14. <행위>도 먼저는 ‘생각’에서 시작된다. 고로 <생각>이 안 나면, 그날 해야 될 일도 못 한다. 그래서 <생각났을 때>는 꼭 써놔야 된다. 써 놓고 외워야지, 안 써 놓고 외우려면 힘들다.
15. <사랑>하면, 안 잊어버린다. 그 사람을 사랑하면, 기어코 안 잊어버리고 행한다.
16. <사랑의 주체>가 잊어버리면 ‘사랑의 대상’이 이야기해 주고, <사랑의 대상>이 잊어버리면 ‘사랑의 주체’가 이야기해

주는 것이다.

17. <양단의 세계>가 서로 하나 돼서 자꾸 해야 된다. <끌고 가는 자>와 <따르는 자>가 서로 하나 돼서 ‘시대 역사’를 펴나가야 된다.
18. 안 된다고 하지 말고, 낙심치도 말고 해라.
19.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된다. 특히 지도자들, 사업하는 자들은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된다.
20. <사기꾼>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된다.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고 조심해야 된다. 요즘 사기꾼들은 자기도 같이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든다. 가령 7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, 문제가 생겨서 그 건물 주인이 빨리 팔아 버리려고 한다면 자기와 각각 10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사자고 한다. 그런데 그 건물은 이미 사기꾼의 것이다. 고로 나중에는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건물을 못 사게 됐다고 한다. 이 같이 건물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. 사기꾼들의 술법은 수만 가지가 있다. <다단계>도 하나의 사기성이 있는 일이다. 법 문제에 해당이 안 되게 교묘하게 술법을 쓴다. 고로 완벽하게 알고 행해야 된다.
21. <영적 세계>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사기에 해당된다. <성경>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하나의 사기에 해당된다.

22. 선생은 사기꾼들을 놓고 ‘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’로 때려 달라고 늘 기도한다. 하나님은 <의인의 기도>는 꼭 들어주신다.

23. 선생이 예전에 청주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,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.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내가 해 준다. 그러나 네가 모른 만큼 당했으니 모른 것을 통탄하고, 앞으로는 몰라서 안 된다. 꼭 알아야 된다.” 하셨다. 그러고서 경제적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, 결국 10년, 20년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. 그때 깨닫기를, ‘몰라서 사기를 당한 것이다. 고로 내가 알아야겠다. 알고 신이 되어야겠다.’ 했다. 그리고 그때 <예정>에 대해서도 깨달았다.

24. 성경에도 “네 행위대로 갚아준다.” 했다. <자기 행위>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. 고로 <예정>은 ‘절대적인 것’이 아니다. 다만 ‘메시아가 온다.’ 하는 성경의 예언은 절대 예정됐다.

25. 하나님은 <좋은 것>은 예정하셨지만, <나쁜 것>은 예정하지 않으셨다.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게 행하면, 자기 행위로 인해 그 나쁜 것 속에 들어가게 된다. 즉, <자기 행위>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.

26. <자기 행위>로 자기를 ‘지옥’으로 가게 하고, <자기 행위>로 자기를 ‘천국’으로 가게 한다.

27. <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>과 <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>은 이미

예정되어 있다. 자기가 ‘지옥 길’을 가면 ‘지옥의 운명’이 예정되어 있고, 자기가 ‘천국 길’을 가면 ‘천국의 운명’이 예정됐다는 것이다. 그런데 <지옥 길을 가는 것>과 <천국 길을 가는 것>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. <자기 행위>로 ‘지옥 길’을 가고, <자기 행위>로 ‘천국 길’을 간다.

28. <길>은 결정되어 있어도, ‘사람의 운명’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. 고로 성경에도 “<사망 길>로 가지 마라. <생명 길>로 가라.” 했다.

29.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‘사망 길’로 간다.

30. <자기>가 완전하게 행하면, ‘사망 길’로 안 가고 ‘천국 길’로 간다.

31. 완벽하게, 완전하게 해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사기 당하고, 일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한다.

32. 야심작의 돌을 완벽하게 세웠듯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.

◎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아침에 또 해 주겠습니다.